

## 〈꽁지 닳 발 주둥이 닳 발〉설화에 나타난 탐색과 문답의 서사원리 연구

김정은\*

— <차 례> —

1. 서론
2. <꽁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설화의 전승양상
  - (1) <꽁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구비설화의 전승양상
  - (2) 출판물을 통한 현대적 변이 양상
3. <꽁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설화의 서사원리
  - (1) 수성(獸性)으로 외화 된 탐식과 파괴의 화소
  - (2) 문답형식을 통한 숨겨진 가치의 탐색
4. 문답을 통한 두려움의 대면과 퇴치의 서사적 화두 생산
5. 결론

### 〈국문초록〉

본 논의는 과거보다 현대에 출판물의 영향으로 더 많이 소통하게 되어 현대인들에게 각인된, <꽁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설화의 서사원리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공통된 화소와 사건을 이끌어 가고 풀어가는 구조, 대립지점의 해결을 통해 이 설화 유형의 고유성을 유지하게 하는 서사원리와 서사적 화두를 파악해 보았다.

이 설화 유형을 각인하게 하는 화소는 ‘꽁지 닳 발 주둥이 닳 발’의 짐승이다. 어머니를 떠나 홀로 독립해야할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의 충동과정들이 탐식의 욕망을 가진 수성의 형태로 외화된 것을 ‘꽁지 닳 발 주둥이 닳 발’의 화소로 보았다. 사건을 이끌어 가고 풀어가는 구조를 문답형식으로 보았는데, 문답형식은 두려움과 분노를 주는 ‘꽁지 닳 발 주둥이 닳 발’을 탐색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문답형식을 통해 ‘꽁지 닳 발 주둥이 닳

\* 건국대학교

밭'의 실체를 탐색하는 과정은 아이들의 기지와 인내, 집념 등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답과 탐색의 서사원리로 '꽁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화두를 던지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커다랗고 정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꽁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은 어머니를 끔찍하게 죽이며 모든 존재를 절멸하게 할 수 있는 파괴의 서사를 생성한다. 그러나 이 설화는 아들이 꽁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의 파괴적인 행동에 좌절하지 않고 되치로 움직이게 하여, 어머니를 먹는 두렵도록 커다란 짐승과의 대결을 통해 개인적인 독립성을 쟁취해 가는 과정을 서사로 보여준다. 즉, '파괴의 두려움과 불안에 머물 것인가, 넘어서 것인가?'의 서사적 화두를 던지며, 아들의 행보를 통해 좌절과 파괴에 머물지 않을 삶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꽁지 닳 밭 주둥이 닳 밭, 문답형식, 탐색, 식인성, 탐식, 서사원리, 옛이야기 그림책, 서사적 화두

## 1. 서론

<꽁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설화는 어머니를 죽이거나 잡아먹은 '꽁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이라는 짐승을 아들(혹은 오누이)이 찾아서 죽여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의 이야기다. 짐승을 죽이는 방법은 술에다 가둬서 불을 지피는 것으로 모든 설화가 동일한데, 이 짐승의 탄 재가 모기가 된다는 유래담이 결말에 첨가되어 '모기 유래담'으로 전승되기도 한다. 주둥이와 꼬리가 아주 긴 짐승이 어머니를 잡아먹었다는 사건으로부터 더 나아가 아들이 어머니로 만든 국을 모르고 먹는 등의 식인성이 잔혹하게 표현된 이본도 있다.

많이 전승되지 않는 설화지만, 동일한 서사 구조로 탄탄하게 전승되는

3편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한 출판물의 옛이야기 그림책이 시리즈에서 빠지지 않다보니, 오히려 현대에 어린이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조마구’ 혹은 ‘꼬리 닳 밭 주둥이 닳 밭’로 명명되었으나, 출판물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에게 ‘꽂지 닳 밭 주둥이 닳 밭’로 각인되어 있어, 본 논의에서는 현대인들이 소통하는 설화의 제목으로 논의하도록 하였다. 출판물로 나온 옛이야기와 구비 전승되는 이야기에는 설화의 제목만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어린이를 겨냥한 그림책으로 출판되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잔혹하게 묘사한 부분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더 나아가 설화 전승과 다르게 ‘큰 새가 어머니를 잡아가서 큰 새를 죽이고 어머니를 찾아 돌아오는 이야기’<sup>1)</sup>로 개작되어, 현대인들은 구비 전승된 설화보다 현대적으로 변이된 설화로서 더 많이 소통하게 되었다. 본래의 이야기에서는 어머니를 죽인 괴물에 대해 원수를 갚는 것인데, 잠깐 어머니를 구해오게 하는 작가의 변이가 과연 구비전승된 설화와 같은 의미를 생성하는가에는 의문이 생긴다.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변이가 생성되고 소통되는 이야기임에도 이 설화가 어떤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생성하고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꽂지 닳 밭 주둥이 닳 밭’ 집승의 형태를 ‘조마구’라고 칭한 설화가 있는데, 백석의 시에서 ‘외발가진 조마구’라는 표현이 등장함에 따라 이 설화가 주목받기도 했다.<sup>2)</sup> 『한국민속문학사전』에서는 “자연을 상징하는 괴물 : 인간을 상징하는 아들”을 대립항으로, 괴물을 퇴치하는 수단이 인간의 지략과 불이라는 점에서 인간이 지략을

1) 서정오 글·김성민 그림, 『꽂지 닳 밭 주둥이 닳 밭』, 1996, 보리.

정해왕 글·이억배 그림, 『꽂지 닳 밭 주둥이 닳 밭』, 2000, 교원.

2) 김수경·이수경, 『백석시 교야에 나타난 설화적 특성』, 『어문론집』 45, 중앙어문학회, 2010, 379~400쪽.

사용하여 월등한 힘의 차이를 뒤엎었고,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 불이 결합하여 자연의 힘을 굴복시켰다.”는 해석을 했다.<sup>3)</sup> 그러나 ‘꼬리 닳 밭 주둥이 닳 밭’이 자연을 상징하는 괴물이라고 할 때, 왜 하필 어머니를 잡아 먹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밥, 떡, 죽을 해먹는 서사단락이 있어, 이를 자연의 힘만으로는 볼 수 없는 지점들이 발견된다.

본격적인 <꼬지 닳 밭 주둥이 닳 밭> 설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1편이 있는데, <조마구 설화>의 각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와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상세히 밝히고, 지하공간과 괴물의 상징성, 통과 의례를 거쳐 자아실현을 해 가는 이야기로 의미를 논하며, 더 나아가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마구를 외면적으로 악의 세계를 대변하는 존재로, 내면적으로 미성숙한 자아의 어두운 그림자의 상징으로 보았다. 조마구에게 살해당하는 어머니는 사회의 규범과 집단 의식을 대변하는 존재로 조마구의 죽음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의식과 무의식의 대극의 합일을 융합하는 성숙된 인격의 출현을 보여준다는 논의를 했다.<sup>4)</sup> 분석심리학에서는 아버지를 사회규범과 넓은 집단 의식으로 주로 해석하는데,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화소를 ‘아버지의 죽음’과 동일하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바리데기>에서 가부장제의 넓은 집단 의식으로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조력자를 만나며 약수를 구해 아버지를 살리는 것과 이유도 모르고 형체도 불명확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어머니의 복수를 하기 위해 조력자를 만나고 짐승을 물리치는 것이 과연 같은 의미를 생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설화만의 독특한 화소와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승집단의 사유 및 표현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

3) 노영근, 『꼬리 닳 밭 주둥이 닳 밭 괴물』, 『한국민속문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2, 127쪽.

4) 오정아, 『조마구 설화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설화의 서사원리는 설화가 전승될 때, 인류에게 되풀이 되는 삶의 본질적인 물음이 잘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꽂지 닻 발 주둥이 닻 발> 설화 역시 ‘어머니를 잡아먹는 짐승’이라는 충격적인 화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를 각인하게 하고 재현하기 쉬운 형태(pattern)’<sup>5)</sup>로 전승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음미하게 하고, 변이하게 하는 서사원리를 지녔는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현대인을 불편하게 하여 출판물에서는 축소되었지만, 구비 전승된 설화에서 핵심 사건을 이루는 ‘식인성’, ‘짐승 형태의 불확실성’, ‘어머니의 죽음’ 등의 화소를 통해 이 설화가 원형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재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 어떤 서사원리로 의미를 생성해 내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 2. <꽂지 닻 발 주둥이 닻 발> 설화의 전승양상

### (1) <꽂지 닻 발 주둥이 닻 발> 구비 설화의 전승양상

본 연구의 기초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구전설화』의 설화들이다. 이 설화는 어머니를 살해한 ‘조마구’로 표현되기도 하고, 꼬리 혹은 꽂지 닻 발 주둥이 닻 발로 형상화된 짐승에 대한 복수담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꽂지 닻 발 주둥이 닻 발><sup>6)</sup>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

5) 김정은, 『설화의 서사문법을 활용한 자기발견과 치유의 이야기 창작방법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16, 1쪽.

6) 조희웅은 S. 톰슨의 색인번호를 적용하여 ‘H1200-H1399. 용맹에 대한 실험 :탐색’의 영역에 수록하고, 세분화하여 ‘H1360 위험한 동물 탐색’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후 『대계』)에 5편, 『한국구전설화집』에 1편, <모기유래담>으로 간략하게 변이되어 『대계』에 2편이 전해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콩지 댕 밭 주둥이 댕 밭> 설화 유형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서	출처	각편 제목	전승지역	구연자
1	대계 1-4, 36쪽 유형번호 731-9	조마구	경기 의정부	양순이 (여, 80세)
2	대계 5-7, 542쪽 유형번호 731-9	아들의 복수	전북 정읍	한광주 (남, 76세)
3	대계 8-2, 322쪽 유형 336	<b>꼬랭이 댕 밭 주둥이 댕 밭</b>	경남 거제	진순이 (여, 73세)
4	한국구전설화 10, 346쪽	<b>열땃 밭 되는 새</b>	경남 거창	옥만석 모친 (여, 50세)
5	대계 8-6, 34쪽 유형번호 134-1	꼬리 댕 밭 주둥이 댕 밭 괴물	경남 거창	고대석 (남, 55세)
6	대계 1-7, 349쪽 유형번호 632-1	모기의 유래	인천 강화	김순이 (여, 81세)
7	대계 4-6, 188쪽 유형번호 623-1	꼬랭이 댕 밭 주둥이 댕 밭	충남 공주	유조숙 (여, 75세)
8	대계 6-7, 84쪽 유형번호 623-1	깔다구와 모기가 된 이야기	전남 신안	김정금 (여, 52세)

각각의 설화가 『대계』의 부록편인 『설화유형분류집』의 유형기준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설화 유형에 대한 기준점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물이 이물로 변한 것’으로 서사의 순차구조를 파악했을 때는 6번, 7번, 8번의 자료 3편이 ‘623-1 죽어서 모기가 된 것들’로 분류되고, ‘지략’을 중심화소로 생각했을 때는 3번의 자료 1편이 ‘336 힘겨운 상대방 지략으로 누르기’로 분류된다. 또한 동굴에 사는 괴물을 퇴

(오정아(2008), 위의 논문, 4쪽, 재인용)

치하는 설화 계열로 보았을 때는 5번의 자료 1편이 '134-1 지하국대적 퇴치'로 분류되고, '복수'를 서사의 핵심 원리로 두었을 때는 1번, 2번의 자료 2편이 '731-9 가족 뺏긴 사람 고생 끝에 복수하고 잘 되기' 유형으로 분류 되어 있다.

이중 3번 『대계』 8-2 설화와 4번 자료인 『한국구전설화』는 동일한 서사구조와 내용으로 사건의 핵심이 되는 화소를 두루 담고 있다. 8편의 자료 중 3번, 4번을 선본으로 서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주둥이 댕 발 똥지 댕 발 새'가 혼자 집을 보는 아이에게 엄마, 아버지, 오빠, 언니가 어디에 갔는지 물어보자, 엄마는 장에, 아빠는 논 갈러, 오빠는 서당, 언니는 빨래하러 갔다고 답한다.
- ② 새가 너희 엄마가 오면 감나무에 걸어놓겠다고 하고 가더니, 장에서 오는 엄마의 사족을 갈라서 감나무에 걸어 놓았다.
- ③ 오빠가 와서 어찌 된 일인지 묻자 아이는 열댓 발 되는 새가 와서 그랬다고 하자, 오누이는 원수를 갚겠다고 집을 떠났다.<sup>7)</sup>
- ④ 가는 길에 논에서 만난 사람에게 새를 보았냐고 묻자, 논을 거뒀으면 알려준다고 해서, 논을 거두자 빨래하는 여자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이후
- ⑤ 이후 까마귀, 새 쫓는 아이에게 길을 물어보고 일을 해준다.
- ⑥ 새 쫓는 아이가 알려 준대로 갈퀴를 굴러 가는 곳에 갔더니 주둥이 댕 발 똥지 발 되는 새가 있었다.
- ⑦ 숨어서 보니, 새가 '밥을 해서 먹을까, 죽을 해서 먹을까'하다가, 떡을 해 먹겠다고며, 떡을 한 시루떡을 하고는 장자네 집에 칼을 빌리러 갔고, 아이는 그 사이에 떡을 다 먹었다.
- ⑧ 새가 와서 떡이 없어서, 소, 말, 개 닭에게 먹었냐고 묻자, 그들은 다 안 먹었다고 한다.
- ⑨ 다음날은 새가 죽을 해놓고 장자네 집에 주걱을 빌리러 간 사이 오누이가

7) 대계 8-2는 오누이가 함께 떠나고, 『한국구설화집』에서는 오빠만 떠난다.

다 먹자, 커다란 새는 또 짐승들에게 먹었는지 물어본다.

- ⑩ 다음 날에도 밥을 해서 쪽할까, 죽을 후르르할까 하더니 죽을 썬 놓고, 장자네 집에 바가지를 얻으러 간 사이에 오누이가 다 먹고, 짐승들에게 물어보지만 다 안 먹었다고 한다.
- ⑪ 오라비가 기운 없는 새에게 새총을 쏘았더니 새는 빈대가 무나 하면서 술으로 들어갔다.
- ⑫ 오라비가 술뚜껑을 짝 눌러 놓고 불을 때자, 새는 술 안에서 죽었다.
- ⑫-1. 새가 탄 재가 날아가 모기가 되었다.(7번 자료 4-6)

두 자료 모두 문답형식으로 이야기를 구연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5번 자료인 대계 8-6 설화는 이 두 편의 자료와 가장 유사한 자료인데, ‘꼬리 닷 발 주둥이 닷 발’의 짐승을 새보다는 ‘괴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소의 차이가 생겨 <지하대적 퇴치담>설화로 분류되었다. ⑩번 단락에서 술에 들어간 이유가 오라비와 누이의 지략이 아니라 괴물 스스로 밥이 없어지는 게 누구의 소행인지 지켜보기 위해서 스스로 들어간 것이 그 차이점이다. 세 자료 모두 모기의 유래담은 없으며, 새가 술 안에서 퇴치되어 원수를 갚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8편의 자료 중 세 편의 자료가 이와 같은 서사로 진행된다.

이야기 마지막에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의 짐승이 술 안에서 타고, 그 재가 모기가 된다는 변이가 첨가된 자료는 세 편이 있다. 이 중 자료 7번 대계 4-6의 자료는 화자가 재미있게 구연한 자료로 아이의 지략이 돋보이는 변이가 있다. 새와 대결할 때 앞의 자료들과 달리 밥을 못 먹게 새와 구정물을 퍼붓고, 고춧가루와 바늘로 새들이 가마솥으로 들어가게 유인하는 아이의 지략이 첨가된 부분이다. 화자가 모기가 된 내력도 재밌게 구술하고 있고 술 안에서 따뜻하다며 좋아하다가 죽게 되는 지점들을 재밌게 구술하다 보니 현대 출판물에 많이 인용되는 각편이 되었다. 8번 자

료는 아이가 어머니의 찢겨진 사지를 보고 원수를 갚겠다고 길을 떠나서 키를 둘러쓰고 새를 잡아서 솥에 볶고 갈았더니 가루가 모기가 되었다는 짧은 이야기다. 6번 자료는 조마귀가 어떻게 태어나서 모기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짧은 자료다.<sup>8)</sup> 조마귀가 달걀을 쳐서 나온 존재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

1번 자료와 2번 자료는 ‘복수’와 ‘퇴치’가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1번의 대계 1-4에 나오는 ‘조마귀’는 ‘콩지 닷 밭 된 짐승 주둥이 닷 밭’의 이름으로 짐승이 ‘새’로 표현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나무를 하고 온 아들이 줄에 널린 것을 자신의 새 옷이라고 착각하고, 솥에 가득한 고기국도 어머니가 끓여 놓은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를 먹은 것이라는 대목이 첨가되었다. 2번 자료는 <아들의 복수><sup>9)</sup>라는 제목 때문에 이 유형의 설화 연구 논의에서 빠졌던 자료이다.

각 설화마다 첨가와 변이, 생략 등이 있지만, 설화의 전승양상을 통해 식인의 습성을 가진 콩지와 주둥이가 낀 짐승이 어머니를 죽이는 것, 길을 물어 짐승을 찾아가는 문답구조, 몰래 숨어 탐색한 후 자신과 대립되는 커다란 짐승을 솥에 넣어 태워 죽인다는 결말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

8) 달걀 같은 게 뽕그르르 방으로 굴러 들어오거든. 그니까, 이 인제 거시키가 그 주인네가 고걸 톱 쳤거든. 톱 치니까는 달걀을 톱 치니까, 톱 치니 깨지지 않았어? 깨져가지구 또 달걀이 왜가지구 또 다른 데로 달아나거든. 그러니까는 또 가서 톱 쳤거든. 그러니까는 그 때는 요놈의 달걀이 그냥 그 조마귀야. 그 조마귀가, [조사자:조마귀요?] 조마귀. 이름이 조마귀야.

대계 1-7, 349쪽.

9) 어머니를 찢어 말뚝에 걸어놓은 ‘콩지가 대자나 되고 주둥이가 석자나 되는 새’를 찾아가 복수하는 내용은 동일하나, 마지막에 사람들이 보통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며 서로 사위를 삼으려 해서, 좋은 집에 장가를 잘 가게 되었다는 내용이 첨가된 이본이다.

## (2) 출판물을 통한 현대적 변이 양상

<뽕지 땃 밭 주둥이 땃 밭>은 구비전승 되었을 때보다 출판문화로 현대에 더 많이 퍼진 설화 중에 하나다. 그러나 구비전승 된 <뽕지 땃 밭 주둥이 땃 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 <뽕지 땃 밭 주둥이 땃 밭>이라는 옛이야기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1996년에 서정오의 <옛이야기 보따리 시리즈>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설화에서 구연되었던 ‘조마구’, ‘꼬리 땃 밭 짐승’ 등의 이름과 형태가 ‘뽕지 땃 밭 주둥이 땃 밭’인 커다란 새의 형태로 각인 되어 이후 출판물에서도 괴물보다는 커다란 새로 통일되게 나타난다. 그중 유조숙 화자가 실감나고 재밌게 구연해 완결성이 있는 ‘자료 7번 대계 4-6’이 현대 출판물의 이야기에서는 기초자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길을 묻다 일을 하고 가져온 것으로 예측할 여지가 있는 고추, 도꼬마리 등이 이후 출판된 이야기에서는 명확히 일의 댓가로 받아온 것으로 변이<sup>10)</sup>되고, 그것들이 짐승을 물리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무섭도록 커다란 새지만 아이의 지략으로 이기는 교훈을 담아내게 되었다.

대중에게 많이 읽히는 서정오의 옛이야기책에서는, 전승된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식인의 습성을 가진 뽕지와 주둥이가 긴 짐승이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 생략되거나 변이되었다. 어머니를 뽕지 땃 밭 주둥이 땃 밭이 잡아가서 어머니를 찾으러 떠나는 이야기가 되고, 새를 죽이고 어머니를 찾아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의 이야기가 된다.<sup>11)</sup>

어머니가 잡아먹히지 않고 커다란 새에게 잡혀가는 것으로 변이한 것

10) 모 심는 사람이 준 재를 방에다 뿌리고, 마당에는 고춧밭 매는 사람이 준 고춧가루, 부엌에는 다람쥐가 준 도꼬마리, 부엌 아궁이에는 까치가 준 삭정이를 잔뜩 넣었지.(41쪽)

11) 서정오, 『옛이야기 보따리 시리즈』, 보리, 1996, 33~42쪽.

은 서정오가 평소에 생각하는 “어린이 마음이 다치지 않는지”<sup>12)</sup>의 기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sup>13)</sup> 그러나 문제는 어린이 독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만들어진 출판물의 변이가 구비전승 되는 설화가 담고 있는 “인간관계의 다양한 양상과 문제 해결”<sup>14)</sup>과 같은 서사적 화두를 생성해내고 있는가이다. 또한 권위 있는 작가일 땐, 작가의 변이가 이후의 출판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원 옛이야기 시리즈의 정해왕 작가 역시 서정오 작가가 변이한대로 어머니가 간혀 있고, 새가 죽어야 스르륵 열리는 ‘쇠문’이라는 창작된 화소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sup>15)</sup> ‘쇠문’은 작가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전승된 것이다. 어머니가 납치되는 변이는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비룡소의 김기정 작가는 납치된 어머니가 아들을 만났을 때 “너만은 어서 도망가라”라는 말을 넣는다. 모성은 꿈지 댕 발 주둥이 댕 발과 싸우기 보다는 도망가는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 어머니가 자신의 희생으로 아들이 싸우기보다 도망가기를 원한다는 대사를 한 것은, 어머니의 납치라는 변이가 단순히 어린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변이한 것만이 아니라, 희생적 모성으로 아들을 안주하게

---

12) 서정오는 전해오는 옛이야기의 본모습이 온전하게 살아있는지,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백성들의 것인지,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지, 재미와 교훈이라는 두 개의 축이 튼튼한지 살피는 주의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정오, 『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1995, 62~63쪽.)

13) 설화 다시쓰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된 선행연구들이 있다. 신동훈은 원형적 보편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고, 오세정은 모본이 되는 설화 텍스트에 이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말하며 교훈성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야 함을 논했다. 신동훈, 『어린이의 삶과 구비문학, 과거에서 미래로』, 『구비문학연구』 25,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1~23쪽.

오세정,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설화 다시 쓰기의 문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5~29쪽.

14) 신동훈(2007), 앞의 논문, 8쪽.

15) 정해왕 글, 이억배 그림, 『꿈지 댕 발 주둥이 댕 발』, 2000, 교원.

하는 성향을 드러내게 하며, 민담의 주인공을 갈등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sup>16)</sup>

어린 아이였던 오누이와 아들이, 공포감을 주는 커다란 새를 퇴치하면서 형세의 역전을 이루는 부분은 변이 되지 않았고, 출판물의 이야기 역시 작은 아이가 커다란 새를 물리치는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잔혹하게 죽는 장면이 어린이 출판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결말은 다시 어머니 세계로 회귀하게 하며 괴물새를 만나기 이전과 다르지 않은 자식의 삶을 이어가게 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을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작가의 해석으로만 생략하고 한정하는 경향으로 보일 수 있다.<sup>17)</sup>

또 구비설화에서는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미지의 짐승이 그림책으로 인해 ‘꼭지 닳 발 주둥이 닳 발’인 새로 확정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조막만한 달걀에서 나오기도 하고 작아서 알아보았다가 커지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짐승이면서 주둥이와 꼬리가 길기도 하는 등 한 번도 본적 없는 수성(獸性)인 다양한 형태가 ‘커다란 새’의 형태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대적 변이는 이 설화의 다양한 상징성이 약화되게 하고, 어머니 세계로 회귀하게 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후에 출판사의 차별화로 어머니가 죽는 대목이 들어간 책이 출판되기도 했다.<sup>18)</sup> 그러나

16) 막스 루티는 민담의 주인공은 동요하지 않고, 보고 체험하는 존재로, 그저 행동할 뿐 입을 강조했다. (막스 루티, 김흥기 역, 『유럽의 민담』, 2005, 보림, 21~23쪽.)

17) 신동훈은 작중상황에 대한 자상하고 유려한 서술은 얼핏 이야기를 빛나게 하는 요소처럼 보이지만, 실은 독자를 작가의 관념 속에 가두어 자유로운 상상과 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신동훈, 『설화와 소설, 그리고 동화의 길』, 『어린이와문학』 10, 2006, 105~106쪽.)

이 역시 아쉬운 점은 전승되는 구비설화에서처럼 정체를 모를 두려운 새가 어머니를 잡아먹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하고 문답해 가는 과정이 잘 살아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의 서사적 원리로 어떤 서사적 화두를 생성하는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설화와 변별되는 이 설화의 고유한 서사원리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 3.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 설화의 서사원리

설화의 서사원리는 다른 설화와 변별되게 각인되는 중심 화소에서 출발한다. 이는 중심 화소에서 중심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 가는지, 사건으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가 순차구조이다. 설화는 낯설고 독특하고 인상적인 화소<sup>18)</sup>를 통해 독립적인 이야기를 형성한다. 이 인상적인 화소들이 생성한 사건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설화의 서사원리라 칭하고자 한다. 서사구조가 여러 설화 유형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추출된 것이라면 서사원리는 각 설화 유형의 고유성을 유지하게 하여 재현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설화의 서사원리로 고유한 각 설화의 의미가 생성된다. 따라서 서사원리를 탐색한다면 각 유형의 설화마다 말하고자 하는 서사적 화두를 밝히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은 현실에 없는 화소다. 그럼에도 비현실적인 짐승과 대면하는 이야기가 현대에도 전승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18) 이상희 글, 조은희 그림,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 시공주니어, 2006.

이잡 글, 김만하 그림,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 썬크하우스, 2011.

19) 장덕순 외, 『구비문학 개설』, 일조각, 1971, 51쪽.

화두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꿩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이 가진 화소가 어떤 사건을 발생하게 하는가를 보고, 그 사건을 어떻게 풀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성(獸性)으로 외화 된 탐식과 파괴의 화소

이 유형의 설화가 다른 설화와 변별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화소는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식인의 습성을 가진 커다란 짐승인 ‘꿩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이다. 설화 속 오누이가 의지하던 어머니를 잡아가거나 먹는 무섭고 두려운 동물을 대면했듯이, 설화를 통해 현대인 역시 살아있는 존재를 지울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짐승을 만나게 된다.

현대의 출판물에서는 모두 ‘꿩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인 새의 형태로 그려지는데, 새의 형태가 아닌 ‘꼬리 닳 밭 주둥이 닳 밭’이라는 짐승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조마구’로 표현되기도 한다. 백석의 시 <고야(古夜)>에서 ‘외발가진 조마구 뒷산어늬메도 조마구네나라가있어서 오줌누러개는 재밭 머리맡의문살에대인유리창으로 조마구군병의 새깎안대가리 새깎안 눈알이들여다보는데 나는 이불속에자들어붙어 숨도쉬지못한다’<sup>20)</sup>라는 대목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시에서의 ‘조마구’는 어린 시절 화자에게 깊은 밤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고야(古夜)>의 선행연구에서는 ‘조마구’를 조무래기의 옛말로 키가 작은 난쟁이<sup>21)</sup>로 논의한바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조마구<sup>22)</sup>는 ‘조막만하다’라고 표현할 때의 ‘작다’의 의미

20) 김수경·이수경(2010), 위의 논문, 382~383쪽 제인용.

21) 김수경·이수경(2010), 위의 논문, 383~384쪽.

22) 1. ‘조막1(주먹보다 작은 물건의 덩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잘못.  
2. [북한어] ‘조막1(주먹보다 작은 물건의 덩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북한어.  
3. [북한어] ‘조무래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와 조무래기로 표현할 때의 ‘꼬마나 어린아이들을 낫잡아 이르는 말’이 있어 ‘키 작은 난쟁이’로 서술되었다는 추측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조마구네나라’나 ‘조마구군병’ 등의 시어로 유추했을 때, 북방의 유목민 등의 다른 이민족 무리를 문화적인 차이로 알잡아서 낫게 부른 것이고, 마을의 사람들을 잡아가며 초토화시키고 사라지는 유목민들에 대한 파괴와 절멸의 두려움이 표현된 것은 아닐까 추측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조마구’로 불릴 때는 다양하게 상상하게 되고, ‘꽂지 닻 밭 주둥이 닻 밭’로 명명될 때는 커다란 괴물새로 인식되는 차이가 있지만, 이 낫선 외재자에 대해 백석의 시와 설화에서 모두 이 대상에 대해 ‘두려움’,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꽂지 닻 밭 주둥이 닻 밭’의 짐승은 ‘어머니의 살해’라는 무시무시한 사건을 초래하게 한다. 방아품을 팔아 아들에게 밥을 해주겠다는<sup>23)</sup>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이다. ‘꽂지 닻 밭 주둥이 닻 밭’은 누이에게 여러 가족을 물어보고, 군이 어머니를 죽여 사지를 갈라서 감나무에 걸여 놓는다. 오누이 혹은 아들에게 어머니는 없어서는 안 될 커다란 존재였다. 그런 어머니의 시신이 높은 감나무에 걸리는 것은 고통과 두려움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는다. 무시무시한 짐승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은 절멸과 파괴의 공포를 주기도 하지만, 어머니 원수를 갚기 위해 두려움을 주는 ‘꽂지 닻 밭 주둥이 닻 밭’의 짐승을 찾아 떠나

---

23) “남털이랑 나무 부지런이 해와. 날랑 방아품 팔아다 저기 밥해 줄게.”(중략)  
어머니는 날마다 방아품을 팔러가고 그러는데, 가서 한번은 아침 먹으면서,  
“나무 가서 부지런히 많이 해 와 응.” 그라닝께는...  
“나는 방아품 팔아 너 밥 해 줄게.”  
(자료 1번, 대계 1-4, 36쪽)

게 하는 서사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어머니의 찢겨진 시신으로 파괴에 대한 두려움을 겪지만, 동시에 분노로 무시무시한 짐승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된 것이다.

여기서 왜 짐승이 다른 가족 중에 어머니만을 죽이거나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왜 꿩지 닷 밭 주둥이 닷 밭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먹거나 죽인 이야기를 향유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식인의 행위는 오디세이에서 시실리 섬에 사는 애꾸눈 거인 키클롭스, 잭과 콩나무의 거인, 빨간 망토의 늑대 등 많은 이야기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모티프다.<sup>24)</sup> 옛이야기에서 식인의 주된 관심은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것<sup>25)</sup>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 중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는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으로 해석하기도<sup>26)</sup> 했고, <헨젤과 그레텔>에서 헨젤을 먹으려는 마녀 역시 부정적 모성의 다른 모습으로 논의되기도 했다.<sup>27)</sup> 그렇다면 ‘꿩지 닷 밭 주둥이 닷 밭’ 짐승은 자신의 것으로 삼키며 공포를 주는 또 다른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반대로 ‘꿩지 닷 밭 주둥이 닷 밭’의 선행연구에서는 조마구를 아들의 그림자로 논의한 바 있다.<sup>28)</sup> 하지만 설화의 상징성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

24) 식인 이야기에 대해 마리나 워너는 “가장 초기의 신화적 표현 속에 들어 있는 카니발리즘의 모티프는 특히 어린 어린이들에게 대한 위협을 포함하며,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유아의 생존 투쟁을 극화하고 있다.”고 했다. (프랜시스 버커·피터훙·마가렌 아이버스 엮음, 이정린 역, 『식인문화의 풍속사』, 이룸, 2005, 245쪽.)

25) 멀치아·엘리아데 저,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사, 1995, 91쪽.

26) 이부영 외, 『민담학개론』, 일조각, 1989, 127쪽; 정운채, 『구비설화에 나타난 자녀서사의 어머니』, 『문학치료연구』 6,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239~244쪽; 신동훈, 『삶을 일깨우는 옛이야기의 힘』, 우리교육, 2012, 135~149쪽.

27) 어머니가 바로 살인자가 되거나 사람을 잡아 먹는 마녀로 둔갑한다. 독일민담 중 이 주제를 나타내는 모범적인 이야기는 잘 알려진 헨젤과 그레텔이다. (칼구스타브 응저(2006), 앞의 책, 139쪽.)

를 열어둘 수 있다. 식인의 습성을 짐승이 실제 어머니의 또 다른 어두운 모습 자체로 해석되어, 어머니의 이미지 중 ‘먹이는 모성적 의미’<sup>29)</sup>의 이미지를 단절하게 하는 역할로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그림자이건, 어머니의 어두운 모습이건, 이 짐승으로 인해 구순기적인 탐식의 욕망과 단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아들이 구정물로 짐승의 먹을 것을 못 먹게 만들거나 아들이 몰래 밥 등을 먹자, 이 짐승은 힘을 잃는다. 또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빈대가 물자 “아이고 빈대야, 저녁조차 굶었는데...”<sup>30)</sup>하며 괴로워하며 슬단지로 들어간다. 식인 이야기라면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커다란 슬단지<sup>31)</sup>에 들어가 죽게 되는 것, 모기가 되어 복수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다는 화소 역시 먹는 것을 끊임없이 탐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아스케나시는 “인간은 자신의 수성을 외화 시킨다.”<sup>32)</sup>고 했는데, 이때 주둥이가 아주 긴 동물의 형상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순기적 탐식의 욕망을 외화 시킨 것’으로 연결할 수 있다. 탐식의 욕망이 가진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수성(獸性)의 형태로 상징하는 것이 ‘꿈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인 것이다.

여기서 어머니의 죽음은 “어떤 것이 되려고 하는 조짐이나 전조에 해당하는 현상”<sup>33)</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후의 과제를 주기 때문이다. 자식을

28) 오정아(2008), 앞의 논문, 78~80쪽.

29) 짐승은 무의식을 대표하며 의식의 모상(母床)으로서 모성적인 의미를 갖는다.(칼구스타브 융 저(2006), 위의 책, 265쪽.)

30) 자료5 대계 8-6, 37쪽.

31) 프랜시스 버커·피터훙·마가렌 아이버스 엮음(2005), 앞의 책, 14쪽.

32) 한스 아스케나시 저, 한기찬 역, 『식인문화의 수수께끼』, 청하출판사, 1995, 169쪽.

33) 이유경, 『원형과 신화』, 분석심리학연구소, 2008, 120쪽.

먹여주고 키워주던 어머니는 상징적으로 죽고, 수성으로 외화 시킨 형태의 괴물로 남아 아들이 집을 떠나도록 하는 통과의례를 겪게 한다.

나를 먹이며 키워주었던 어머니를 떠나 성장하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혼란과 두려움은 이 탐식의 욕망이 외화된 수성을 극복할 때 사라진다. 부모를 분리하려는 자아의 활동이 ‘뽕지 닻 밭 주둥이 닻 밭’과의 대결로 전면에 나타나며, 위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인격의 결정적인 변화가 마련되는 것이다.<sup>34)</sup> 이렇게 볼 때 ‘뽕지 닻 밭 주둥이 닻 밭’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 <헨젤과 그레텔>의 계모와 마녀처럼 가두기 위해 먹어서 자신의 속으로 삼키는 부정적 모성상의 모습도 있지만, 인격의 결정적인 변화를 위해 탐식의 욕망이 외화 된 수성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아들이 어머니와 분리하고 독립하도록 통과의례를 겪게 하는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장을 한다는 것은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상징적인 결별의 과정이 필요하다. ‘뽕지 닻 밭 주둥이 닻 밭’과의 대결의 과정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보호 및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개인의 힘, 집념과 지략을 발견하여 이를 발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뽕지 닻 밭 주둥이 닻 밭’의 화소는 인간의 구순기적 탐식의 욕망이 외화 된 수성으로 자신을 먹이고 기르는 이미지의 어머니 존재를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소멸하게 하는 사건을 형성해 공포를 주지만, 그 공포를 탐색하고 퇴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 안의 독립할 힘을 발견하게 하는 서사원리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34) 응은 신화가 과거적 산물이 아니라 현재적 산물일 수 있음을 밝혔다. 부모를 분리하려는 자아의 활동은 행위, 싸움, 그리고 창조가 되며 용과의 싸움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위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결의를 이끌어 내면서 인격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에리히 노이만, 이유경 옮김, 『의식의 기원사』, 분석심리학연구소, 2010, 149쪽.)

## (2) 문답형식을 통한 숨겨진 가치의 탐색

설화는 허구적 상상력으로써 세상의 이치를 탐색하게 하는 전승집단의 사유와 표현을 일깨워주는 장르다. 현실에 없는 ‘꽂지 닷 밭 주둥이 닷 밭’이라는 탐색의 이미지를 가진 화소를 통해 어머니를 죽이는 사건이 만들어졌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풀어 가는지에 대한 서사원리는 순차구조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설화의 서사원리는 ‘사건을 생성하는 핵심화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sup>35)</sup>에 따라 서사적 요점<sup>36)</sup>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드러내는 삶의 문제와 삶의 가치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 설화의 서사적 요점을 ‘괴물을 퇴치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와 비슷한 서사원리를 가진 순차구조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괴물의 습격-괴물에 대한 탐색-괴물과의 대결-괴물 퇴치’이다.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습격-탐색-대결-퇴치’의 순차구조로 생각할 수 있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에서 괴물과의 대결과 퇴치가 중요하다면, <꼬리 닷 밭 주둥이 닷 밭>설화에서는 짐승에 대한 탐색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괴물 퇴치의 순차구조로 생각했을 때, <꽂지 닷 밭 주둥이 닷 밭>설화가 드러내는 삶의 의미는 미지의 공포를 주는 커다란 괴물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각시를 빼앗아가는 괴물과 어머니를 죽여서 먹은 꽂지 닷 밭 주둥이 닷 밭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은 같을 수 없다.

<꼬리 닷 밭 주둥이 닷 밭>에서는 짐승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오누이

35) 김정은, 『길장가 든 총각』 설화에 나타난 고립의 문제와 관계 전복의 서사문법 연구, 『구비문학연구』 43, 2016, 14쪽.

36) 서사적 요점은 제랄드 프랭스의 이론에 따른 용어이다. (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옮김,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9, 244~246쪽.)

의 지략이 돋보인다는 점과 짐승의 탐색을 하기 위해 길을 묻고 과제를 수행해서 답을 얻는 서사구조가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들어가며 탐색해 가는 것에 반해,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에서는 짐승과의 대결 과정에서 주인공이 동자삼을 먹어 괴물을 퇴치할 힘을 기르는 것과 배우자의 신뢰가 괴물을 퇴치하는데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두 설화가 순차구조를 통해 드러내는 삶의 문제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설화가 던지는 삶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순차구조는 무엇일까?<sup>37)</sup> 이 설화는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사건을 구성해 가는 서사전략을 취하고 있다. 탄탄하게 전승된 자료3번과 자료4번의 자료는 동일하게 문답형식이 길을 묻는 부분만이 아니라, 도입부에서 결말부까지 문답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도입부에서 쫓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짐승은 가족들이 다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집에 혼자 있는 어린 누이가 대답을 한다. 여자아이의 대답을 듣고 어머니가 오는 길을 알아낸 짐승은 어머니를 죽인다.<sup>38)</sup> 어머니의 시

37) 구비설화자료집에 아주 드물게 실려 있는 흔하지 않은 이야기로, 『지하국괴물퇴치설화』와 유사하다. 주인공이 상대역을 찾아 탐색하는 과정에서 도와주는 인물들이 그 대가를 요구하면서, “흰 빨래 검게 씻고 검은 빨래는 희게 씻어” 하는 표현 등이 『구렁덩덩신선비설화』와 『바리데기신화』 등을 연상하게 한다. (『주둥이 닳 발 쫓지 닳 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참고)

그러나 동일한 서사구조 역시 개개의 설화에서 생성하는 의미가 다르다. 같은 문답 형식으로 서사를 끌어가는 것 같지만, 바리데기와 막내딸이 탐색의 여정을 통해 ‘포용’이라는 가치를 생성한다면, <꼬리 닳 발 주둥이 닳 발>은 어머니의 잔혹한 죽음을 통해 자신보다 거대하고 위협한 동물에 대한 징치와 배제를 향한 탐색을 한다. 어려운 과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해내면서 두려운 존재에게 잠식당하지 않고 징치할 힘을 기르는 내적인 성장의 여정이 된 것이다.

38) 옛날에 꼬랭이(꼬리) 닳 발, 주둥이(주둥이) 닳 발, 허리 닳 발, 열 닳 발 새가 있더라요. 있는데, 한 집에 조그만(작은) 아아(아이)가 있는게(있으니까),  
“아가 아가, 너저(너희) 어매 어데 갔노?”  
“우리 어매는 장에 갔소.”

신이 찢겨져서 감나무에 걸린 것을 서당 다녀온 오빠는 동생에게 누가 어머니를 죽였는지 묻는다. 또 다른 이본에서는 이웃에게 어머니를 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누이와 이웃의 대답을 듣고 아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 길을 떠난다.

이후에 아들은 만나는 이들에게 길을 묻는다. 그리고 그들은 과제를 수행해야 꽂지 닷 발 주동이 닷 발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답한다. 서사적 관습으로 빨래하는 논일을 하는 사람과 여인이 등장하고, 구더기를 달리는 까치와 새를 쫓는 아이에게 길을 물어보기도 한다.<sup>39)</sup>

오누이, 혹은 아들은 어머니를 죽이고 흔적도 없이 훌쩍 날아갔거나 사라져 버린 커다란 짐승을 ‘꽂지 닷 발 주동이 닷 발’ 이라는 정보만을 가

“너저 압씬(아버지) 어디 갔노?”

“우리 압씬 논 갈러 갔소.”

“너저 오빠 어디 갔노?”

“우리 오빠 서지(書堂). 갔소.”

“너저 언니 갔노?”

“우리 언니 빨래 갔소.”

“너저 어메 그 년 오거등 저 다리로(다리를) 뜯어서 감에(감나무에) 걸끼라(계라) 캐라(해라).”(자료 3번 대계8-2, 323쪽.)

- 39) “논가는 아저씨, 꼬랭이 닷 발, 주동이 닷 발, 허리 닷 발 봤소?” 한께,  
 “이 논을 다 갈아서, 썬리서, 모를 숨구서(심어서), 가을에 들이 주모 깎차(가르쳐) 줄께.”  
 이라거등. 그래서 인제 논을 갈아서, 썬리서, 모를 심구서, 논을 매서러(매어서), 그래서 인자 준께,  
 “저저(저기저기) 서답 썬는, 빨래 하는 아주매한테 물어 보라.” 쿠더란다.  
 “서답 썬는 아주매, 서답 썬는 아주매, 꼬랭이 닷 발, 주동이 닷 발, 허리 닷 발, 새 봤나?” 큰께,  
 “이 빨래를 썬거서(씻어서), 삶아서, 헤어서(헹구어), 풀로 다려, 내 농 안에 영어(넣어) 주모 일러 주지.”  
 그래 가이고 또, [칭중: 그러모 여러 해 되겠다 그자?] 그래 준께네 여러 헤든가 마든가 원수로 갚아야제. 그래 준께네,  
 “저 까마귀한테 물어 보라.” 캐. (자료 3번 대계 8-2, 323~324쪽)

지고 찾아가야 한다. 그 커다란 짐승이 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갔는지, 그 짐승의 정체는 무엇인지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 짐승은 어머니를 죽였듯 언제고 다시 나타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공포스럽고 폭력적인 존재다. 더구나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들은 숨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존재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찾기 위해 쫓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이 날아간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만나는 존재마다 “쫓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을 보았는지” 물어보며 숨어있는 탐욕적인 폭력의 실체에 다가가려고 한다.

그러나 만나는 이들은 정보를 그냥 주지 않는다. 노동 혹은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정보를 준다. 이들은 왜 바로 길을 알려주지 않고 아들에게 과업을 주는 것일까? 존재를 절멸하게 할 파괴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승화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문제를 해결할 집념을 길러야하기 때문이다. 길을 물었을 때 과제를 내주는 사람들을 통해 오누이 혹은 아들이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면서, 받기만 했던 습성을 바꾸고, 본능적인 자기 욕망을 더 잘 억제할 수 있게 되어, 어려운 과제들을 해내며,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아들은 쫓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이 있는 곳에 가서 바로 대면하지 않고 숨는다. 처음엔 쫓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이 가장 어린 누이에게 질문하며 탐색을 했다면, 이제 아들은 숨어서 탐색하는 것이다. 쫓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은 자기 자신에게 “밥을 할지, 죽을 호로록 할지, 떡을 찢어 먹는지?” 묻는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스스로에게 답하는 모습은 구순기 단계의 행복한 세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쫓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은 자신의 식욕대로 스스로 답을 얻어 음식을 할 수는 있지만 음식을 먹을 도구가 없어 자꾸 집을 비우는데, 그 사이 아

들은 그가 음식을 못 먹게 만들거나 자신들이 먹어 치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여기서 꿈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의 질문은 탐색의 욕망에 충실한 질문이다. 탐색의 욕망에서 넘어섰다면 도구를 먼저 빌리거나, 자신에게 있는 도구를 활용한 음식을 택할 수 있는데 세 번이나 음식 먹는 도구를 빌리러 간 사이에 반복적으로 음식이 없어지는데도 꿈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은 행동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우둔함을 보인다.

꿈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은 음식이 없어진 이유를 소, 말, 개, 닭에게 차례차례 물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하지만 그들이 먹지 않았다고 하자, 굶어서 기운이 빠진 새는 드러눕는다.<sup>40)</sup> 여기서 소, 개, 말, 닭은 꿈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의 질문에 자신이 먹지 않고, 천장 나무 밑에 있는 두 아이가 먹었다고 답하려고 “천장의 나무 밑에”라는 말을 하지만, 꿈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은 ‘동물들이 먹었는가’의 문제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답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진실은 가려진 채, 문답에 실패한 꿈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은 결국 숨어 있는 아들의 존재를 모르고 기운이 빠져 숲 안에 들어가 죽게 된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답형식을 통해 꿈지 닷 발 주둥이 닷 발과 아들의

---

40) “아이고, 니가(너가) 묵었나? 이놈의 쇠(소)야 쇠야, 니가 안 묵었나?”

“음메 음메, 안 묵었다. 천장 나무 밑에…”

“개야 개야, 니가 묵었나?”

“공공(멍멍), 안 묵었다. 천장의 나무 밑에…”

“말야 말야, 니가 묵었나?”

“에에, 안 묵었다. 천장의 나무 밑에…”

“닭하 닭하, 니가 묵었나?”

“꼬꼬, 안 묵었다. 천장의 나무 밑에…”

그래 굶고 갔다. 자고 인자 안날(이튿날) 자고 나서,

“오늘 저녁엔 죽을 써서(쓰어서) 호르리까?”

죽을 한 가미술 써 놓고 장자집에 버지기 얻고 바가지 얻으러 간 새 또 들어서 제기 뚫아 묵었다. 또 오더만은, (자료3번 대계 8-2, 325쪽.)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꿩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은 혼자 있는 누이가 대답할 내용에 대해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계획했던 대로 꿩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은 아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장에서 오는 어머니를 찢어 감나무에 걸어 놓는다. 이는 두려움을 주는 파괴적인 폭력이다. 반면에 짐승에 대한 정보가 없는 아들은 만나는 이마다 꿩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물어보아야 한다. 이처럼 힘든 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그들은 짐승의 정체와 짐승이 사는 곳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

꿩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은 어떤 음식을 해 먹을지 스스로 질문한다. 스스로에게 즐겁게 질문하고 식욕대로 답해서 먹으면 된다. 그러나 이유 없이 음식이 없어지자, 꿩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은 이제 자신과 같이 사는 동물들을 의심하며 질문한다. 동물들은 답을 말하지만, 꿩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은 숨어서 자신을 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하지도 못해 흘려듣게 된다. 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졌던 꿩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은 답을 찾을 수 없자 힘이 없어진다. 반면에 꿩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의 거처도 모르고, 죽일 수 있는 방법도 명확하지 못했던 아들은 꿩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이 혼자 묻고 답하는 행동에서 정보를 얻어 죽일 답을 찾게 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꿩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의 모습을 통해 탐식으로 움직이는 꿩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는 문답으로 승리하고, 꿩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은 문답으로 더욱 우매해져서 패배하는 대립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답형식은 서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사 밖에서도 듣는 이들에게 많은 의문을 각인하게 하며 서사를 이끈다. 열 닻 발 되는 새, 꿩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의 짐승인 조마구는 어떤 모습일까? 왜 다른 가족들을 다 물어보고 하필 어머니를 제일 잔인하게 죽였

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사는 것인가? 이러한 꿈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은 탐색식으로 자신의 마음에 따라 누군가를 파괴할 수 있는 존재의 상징으로써 우리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심상을 준다. 그러나 이토록 두렵고 커다란 짐승을 피하는 것보다 그를 심상을 경험하는 주체로<sup>41)</sup> 설정하여 이야기를 통해 그 대상을 대면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발견하게 한다. 꿈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에 대해 많이 질문하며 그 존재에 가까이 다가가자, 백석의 <고야>에서처럼 밤에 혼자 있을 때 미지의 공포를 주었던 두려움의 존재인 조마구는 마음속에서 모기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질문하고 답하며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문답형식은 아들이 질문들을 통해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함으로써 더 이상 먹이는 어머니의 보호가 없어도 살아갈 총각으로 성장하게 했다. 꿈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을 물리치고 돌아오자, 서로 혼인을 시키려는 이본<sup>42)</sup>이 있는 것은 이렇게 성장한 총각의 가치를 모두 알아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답형식을 통해 꿈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을 탐색해 가는 과정은 자신의 지략과 인내, 집념 등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가치를 탐색하며 성장하는 과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41) 어떤 원인으로 생겨난 결과물이기 보다는 오히려 예기치 못한 것으로써 의식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력은 심상을 경험하는 주체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추진력을 불러일으킨다. (이유경, 『원형과 신화』, 분석심리학연구소, 2008, 120쪽.)

42) 자료2번 대계 5-7 542쪽, <아들의 복수>

#### 4. 문답을 통한 두려움의 대면과 퇴치의 서사적 화두 생산

문답형식은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풀 때처럼 서사에 대해 궁금함을 더해 주며 왜 엄마를 잡아갔는지<sup>43)</sup>, 그 새는 어디로 갔는지, 그 짐승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커다란 새를 없앨 수 있을지를 함께 질문하게 하며, 숨겨진 진실, 숨겨진 가치를 찾게 하는 즐거움을 준다.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한 문답형식으로 구비 전승되는 <꿩지 닳 발 주둥이 닳 발>의 이야기는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파괴를 주는 존재에게 다가가게 하는 힘을 준다. 그렇다면 ‘현실에 없는 짐승’을 탐색하고 문답하며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서사적 화두로 밝히고자 한다.

설화는 핵심화소로서의 대립자질로 두 개 이상의 대상을 두고 관계를 형성하며 서사적 화두를 생성한다.<sup>44)</sup> 쉽게 표현해 이 설화가 탐색과 문답의 서사원리를 통해 어떤 삶의 문제를 각인하게 하는가를 ‘서사적 화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들을 자아로, 조마구를 내면

43)작가들의 상상에서도 왜 엄마만 잡아갔는가의 의문은 계속 이어지며, 변이를 만들어 낸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잡아먹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나타난다.

이튿날 어머니는 항아리 속에 들어가 몸을 꼭꼭 숨겼어. 점심 때가 되니까 꿩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새가 찾아와 누이동생에게 어머니 어디 있냐고 또 물었지.

“고개 너머 논에 김 매러 갔다.”

누이동생이 대답하자 새는

“그럼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지 않겠어? 그말을 들은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

“나 여기 있다, 나를 잡아먹어라.”

오빠가 나뭇짐을 지고 집에 와 보니 어머니 옷이 울타리에 걸쳐 있네. 꿩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새가 어머니를 다 쪼아 먹은 거야. (이잠 글, 김만하 그림, 『꿩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썩크하우스, 2011, 3~6쪽).

44) 김정은, 『설화의 서사문법을 활용한 자기발견과 치유의 이야기 창작방법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16, 23쪽.

의 그림자로 상징하는 대립구조를 통해 자아를 실현해 가는 과정으로 논하기도 했고, 45) ‘자연 : 인간’ 46)의 대립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 설화가 다른 설화에 비해 유형분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여러 대립자질을 설정하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먼저 일차적으로 핵심화소인 ‘꽂지 닻 발 주둥이 닻 발 ↔ 인간’을 대립구조로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대립구조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대립자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꽂지 닻 발 주둥이 닻 발	수성(獸性)	크다(大)	강자
인간	인성(人性)	작다(小)	약자

꽂지 닻발 주둥이 닻발은 꼬리 닻 발, 허리 닻 발, 주둥이 닻 발이라는 크기에서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짐승이다. 탐식의 욕망이 외화된 수성의 존재로 인간의 인성과 대립된다. 새총을 맞아도 빈대가 무는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크고, 힘이 장사다. 어머니가 잡아먹혔다는 것은 어머니가 ‘꽂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에 비해 약자임을 말한다. 어머니도 이기지 못한 ‘꽂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에 비하면 아이들은 더 작디작은 약자다. 그런데 강함과 약함, 크대와 작대의 대립관계를 아이들은 전복한다. 아주 크고 무시무시한 새인데 숲에 들어가 타서 조막만한 모기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컸던 새가 나중에 꼬리와 주둥이가 긴 형태의 아주 작은 모기가 된다는 것도 크대와 작대의 고정관념을 넘어서게 한 것이다. 그러나 아주 작은 모기가 되었어도 여전히 인간을 괴롭히며 피를 먹는 ‘꽂지 닻 발 주둥이 닻 발’은 인간보다 작고 나약하지만, 식인적인 탐식의

45) 오정아(2008), 앞의 논문, 78~82쪽.

46) 노영근(2012), 앞의 책, 127쪽.

성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 ‘크다 : 작다’, ‘강하다 : 약하다’의 대립자질이 서사적 행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하게 하며 관계를 전복하는 힘을 사유하게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질문하고 답하는 문답형식과 연결되어 생성되는 대립자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다.

콩지 닳 밭 주둥이 닳 밭	수성(獸性)	크다(大)	강자	미지	우둔함
인간	인성(人性)	작다(小)	약자	실체	기지

이와 같은 대립지점은 ‘콩지 닳 밭 주둥이 닳 밭’과 인간의 다른 삶의 서사 방향을 보게 한다. ‘콩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은 탐식으로 모든 것을 절멸하게 할 수 있는 파괴의 서사를 가졌다. 아들은 자신을 보호하던 존재인 어머니를 찢어서 감나무에 거는 잔혹함으로 두려움에 패배하게 하는 좌절의 서사를 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잡아먹혔다는 사건은 파괴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자식에게 과업을 주며 행동하게 한다.<sup>47)</sup> 아들이 ‘콩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의 파괴적인 행동에 좌절하지 않고 퇴치로 주인공이 움직이는 것은, 어머니의 잔혹한 죽음에 대해 해결할 사람으로 성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파괴의 두려움과 불안에 머물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의 서사적 화두를 생성하며, 아들의 행보를 통해 좌절과 파괴에 머물지 않을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들은 짐승을 보지 못해 동생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으로 그 실체에 다가간다. 질문을 통해 길을 찾고 과제를 해결하며 인내와 집념을 가지게 된다. 또한 탐색을 통해 짐승이 하루하루 먹을 것에만 온통 관심이

47) 영웅적인 인간에게 공포는 요구이자 과제이다. 모험만이 공포로부터 그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칼구스타브 융 저(2006), 앞의 책, 309쪽.)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체를 알게 되자,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오누이는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이 음식을 해 놓고, 음식을 먹을 도구를 빌리러 가는 사이에 몰래 모두 먹는다. 적의 것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며 대응하는 것이다.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 역시 문답을 한다. 어떤 음식을 할지, 왜 음식이 사라지는지 물어본다. 이러한 질문은 구순기적인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질문이다. 아들과 같은 문답형식을 하고 있지만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은 숨겨진 진실에 다가가는 것에 실패하는 우둔함을 보인다. 따라서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의 음식으로 아이들은 강해지고,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은 점점 약해진다. 이때는 음식이 사라지게 하는 오누이가 미지의 존재가 되어 대립관계가 역전되는 것이다.

오누이 혹은 아들은 그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크지만, 빈대처럼 작은 벌레에겐 약한 것을 알게 된다. 넓은 세상을 마음껏 넘나들며 먹고 싶었던 것에 대해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던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은 자신을 무는 빈대를 피해 솔 안에 머물게 된다. 이처럼 커다란 집에 사는 커다란 새가 고작 하잘 것 없는 빈대가 무서워 솔으로 자신을 가둘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오누이는 비로소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을 퇴치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어머니를 잡아먹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짐승으로 인해 좌절과 고통을 겪었지만,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고 그 짐승의 성향인 탐식을 약점으로 역습하며 강과 약의 대립지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솔에 태움으로써 짐승은 퇴치되었지만, 그 가루가 모기가 되는 변이들이 있다. ‘콩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의 커다란 모습은 사라지고 타고 남은 가루가 모기가 되는데 여전히 콩지와 주둥이가 긴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 탐식의 모티프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인간의 피를 빨아 먹는 모기로

우린 그 짐승의 모습을 지금도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모기’로 남는다는 것은 어머니를 잡아먹으며 파괴의 서사를 썼던 쫓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에 대한 흔적을 남기기 위함일 수도 있다. 잔당처럼 모기를 남겨 쉽게 처리할 수 없는 탐식의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남기면서, 동시에 아주 작아진 모기를 보며 두려움으로 좌절하지 않는 서사를 재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서사적 화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 5. 결론

<쫓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은 커다란 짐승이 어머니를 잡아 먹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한다. 아이들은 먹여주던 어머니 없이 세상을 대면할 수 있을지 두렵고 불안하다. 본 논의에서는 왜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승되는 것이고, 왜 현대인에게 더욱 소통되는 것일까의 의문이 이 이야기의 서사원리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특징 있게 하는 화소의 특성에서 시작했다. 어머니를 떠나 홀로 독립해야할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의 충동과정들이 탐식의 욕망을 가진 수성의 형체로 외화된 것을 ‘쫓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의 화소로 보았다. 인간이 가진 구순기적 욕망이 탐식의 수성으로 상징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 이야기의 순차구조인 문답형식은 이와 같이 두려움과 분노를 주는 ‘쫓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을 탐색하게 한다. 문답형식을 통해 ‘쫓지 닳 밭 주둥이 닳 밭’을 탐색하는 과정은 아이들의 기지와 인내, 집념 등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이다.

문답형식으로 자신 안에 두려움을 대면할 자질을 탐색하게 하는 서사

원리를 통해 ‘꿈지 댕 발 주둥이 댕 발’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화두를 던지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커다랗고 정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꿈지 댕 발 주둥이 댕 발은 어머니를 끔찍하게 죽이며 모든 존재를 절멸하게 할 수 있는 파괴의 서사를 생성한다. 그러나 이 설화는 아들이 꿈지 댕 발 주둥이 댕 발의 파괴적인 행동에 좌절하지 않고 퇴치로 움직여, 어머니를 먹는 두렵도록 커다란 짐승과의 대결을 통해 개인적인 독립성을 쟁취해 가는 과정을 서사로 보여준다. 즉, ‘파괴의 두려움과 불안에 머물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의 서사적 화두를 던지며, 아들의 행보를 통해 좌절과 파괴에 머물지 않을 삶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 화두는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의 산물로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이다. 어머니의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비현실적이지만 탐식으로 인한 파괴적 욕망을 상징하는 ‘꿈지 댕 발 주둥이 댕 발’을 지략으로 물리치는 이야기는, 어머니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이 있는 한 계속 향유될 것이다. 이는 물어가며 꿈지 댕 발 주둥이 댕 발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두려움과 대면할 수 있는 자신의 자질 역시 탐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답형식은 현대의 출판물에서 어머니를 잡아먹는 잔혹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묻고 답하며 움직이는 것이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유희를 느끼게 하며, 두려움을 이길 자신의 숨은 가치를 함께 찾아가게 한다. 구비문학의 특성이 있는 옛이야기를 출판하게 될 때, 당연히 작가의 해석과 세상의 가치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게 된다. 이때 작가의 변이가 설화의 서사원리와 서사적 화두에 어긋나지 않는가가 이후의 옛이야기 출판물이 나올 때, 작가의 다양한 변이 속에서도 원형을 잃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한국구비문학대계』 전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10』 평안북도 편, 평민사, 2011.
- 『주둥이 닳 발 꿩지 닳 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 노영근, 『꼬리 닳 발 주둥이 닳 발 괴물』, 『한국민속문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2.
- 김빈애 글, 여기 그림, 신동훈 감수, 『꿩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별뿔별, 2015.
- 서정오 글, 김성민 그림, 『꿩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보리, 1996.
- 이상희 글, 조은희 그림, 『꿩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시공주니어, 2006.
- 이잠 글, 김만하 그림, 『꿩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썬크하우스, 2011.
- 정해왕 글, 이억배 그림, 『꿩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교원, 2000.
- 김수경 · 이수경, 『백석시 고야(古夜)에 나타난 설화적 특성』, 『어문론집』 45집, 중앙어문학회, 2010, 379~400쪽.
- 김정은, 『설화의 서사문법을 활용한 자기발견과 치유의 이야기 창작방법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16, 1~304쪽.
- 김정은, 『‘길잡가 든 총각’ 설화에 나타난 고립의 문체와 관계 전복의 서사문법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43집, 2016, 5~35쪽.
- 신동훈, 『설화와 소설, 그리고 동화의 길』, 『어린이와문학』 제10호, 2006, 92~107쪽.
- 신동훈, 『어린이의 삶과 구비문학, 과거에서 미래로』, 『구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1~23쪽.
- 신동훈, 『삶을 일깨우는 옛이야기의 힘』, 우리교육, 2012, 1~340쪽.
- 오세정,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설화 다시 쓰기의 문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5~29쪽.
- 오정아, 『조마구 설화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1~116쪽.
- 이부영 외, 『민담학개론』, 일조각, 1989, 1~372쪽.
- 이유경, 『원형과 신화』, 분석심리학연구소, 2008, 1~240쪽.
- 정운채, 『구비설화에 나타난 자녀서사의 어머니』, 『문학치료연구』 제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231~252쪽.

- Askenasy, Hans 저, 한기찬 역, 『식인문화의 수수께끼』, 청하출판사, 1995, 1~286쪽.
- Barker, Francis·Hulme, Peter·Iversen, Margaret 엮음, 이정린 역, 『식인문화의 풍속사』, 이룸, 2005, 1~431쪽.
- Carl Gustav Jung 저, 이부영 역,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출판사, 2006, 1~534쪽.
- Eliade, Mircea저,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사, 1995, 1~261쪽.
- Erich Neumann 저, 이유경 옮김, 『의식의 기원사』, 분석심리학연구소, 2010, 1~476쪽.
- Gerald Prince 저, 최상규 옮김,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9, 1~246쪽.
- Lüthi, Max 저, 김홍기 역, 『유럽의 민담』, 2005, 보림, 1~259쪽.

ABSTRACT

A study on narrative principles of  
exploring and a question and answer in the folktale,  
*Kkongji dat bal judung-i dat bal*(*The long tale and long mouth*)

Kim, Jung-eun

This paper analyzes narrative principles of a folktale called *Kkongji dat bal judung-i dat bal*. This story is widely known to modern people by the publication media which can interact well with people than the past. This paper also tries to get the point of the narrative principle and its topics that keeps uniqueness of this folktale type by solving structure that lead the common motif and event, and solution of the confrontation point.

The narrative motif which imprint this folktale is the beast of *Kkongji dat bal judung-i dat bal*. When the main character leaves his mother and becomes independent, the impulsive processes of anxiety and fear that can not be solved by logical and rational thinking are expressed as the desire of gluttony. A structure which leads and resolves the story are considered as a method of question and answer, this method makes the main character to explore the *Kkongji dat bal judung-i dat bal* that gives him fears and rages. Through the method of question and answer, it confirms that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the *Kkongji dat bal judung-i dat bal* is a process of exploring its hidden value through children's wit, patience, and tenacity.

In this narrative principle, the story 'Kkongji dat bal judung-i dat bal' makes us to think about some kind of life topic. A large and unidentifiable *Kkongji dat bal judung-i dat bal* creates a destructive story that killed the mother horribly and can end all beings. However, this story points out that the son is attempt to eradicate the beast rather than discouraged by 'Kkongji dat bal judung-i dat bal's destructive

behavior, and shows the process to get personal independence through a confrontation with the huge beast eating his mother. In other words, this story give us narrative topic of 'Will you stay in the fear and anxiety of destruction? or will you overcome those threat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life that will not stay in frustration and destruction through the son's actions.

**Key Words** *Kkongji dat bal judung-i dat bal(The long tale and long mouth)*, question and answer form, exploring, cannibalism, gluttony, narrative principles, a folktale picture book, narrative theme

논문투고일 : 2017.07.14

심사완료일 : 2017.08.08

게재확정일 : 2017.08.16